

광주극장의 늦봄 뜨겁게 물들일 영화들의 향연

광주극장 웰메이드 작품 개봉

유수 영화제 입상작·감동 애니 등
30년 만 인도에 칸 안긴 ‘우리가…’
새로운 시선·다채로운 장르 ‘눈길’

국내 유일 단관극장으로 시네필들의 정서적 거점으로 명맥을 이어온 광주극장의 4월 말이 뜨거운 신작들로 채워진다. 어느덧 늦봄도 막바지를 향해가는 시기, 웰메이드 작품들이 잇따라 개봉하며 관객들의 발길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극장은 4월 말에 상영될 신작들을 공개했다.

이번 상영작에는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감독 3인의 작품과 감동적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됐다. 이 작품들은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입상했으며 평단의 호평을 끌어내 광주극장의 스크린을 새로운 감각으로 물들일 전망이다.

먼저 23일 인도 영화로는 30년 만에 칸을 거머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개봉한다. 인도 몸바이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상을 통해 빛과 어둠, 상처와 치유, 연대와 독립을 이야기하는 영화로, 인도 출신 파랄 카파디아 감독의 첫 번째 극영화다. 30년 만에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고 뉴욕타임스, 할리우드 리포터, 인디와이어, 사이트 앤 사운드, AP 등 유력 매체의 ‘올해 최고의 영화 1위’에 오르며 극찬을 받았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영상미 속에 여성 노동자들의 섬세한 서사가 진한 공감을 자아냈다는 평가다.

같은날 개봉하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는 철학과 로맨스를 아름답게 버무린 영화로 꼽힌다. 스페인의 작가주의 감독 호나스트루에바 감독이 연출한 최신작으로 14년을 사귀 커플이 이별 파티를 준비하며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유쾌하고도 진지한 과정을 그려냈다. 헤겔과 니체, 베리만과 로맨틱

코미디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대화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제77회 칸영화제 감독주간 유럽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어 30일에는 우정의 성장을 다룬 일본 영화 ‘해피엔드’가 찾아온다. 지진의 위협이 드리운 근미래의 도쿄에서 세상의 붕괴와 함께 미묘한 우정의 균열을 마주하게 된 두 친구 ‘유타’와 ‘코우’의 이야기를 그린 성장 드라마다. 故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연주를 담은 콘서트 필름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로 국내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네오 소라 감독의 첫 장편 드라마다. 청춘의 에너지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연출과 사회를 관통하는 메시지의 조화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 영화는 평론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93%를 기록했고 베니스국제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아날로그 감성의 정수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달팽이의 회고록’도 30일 개봉해 광주

극장의 스크린을 다채롭게 꾸민다. 스톱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대가로 손꼽히는 에덤 엘리엇 감독의 신작으로 거듭 뒤흔치는 불운한 운명 속에서도 인생의 희망을 찾아가는 그레이스의 성장을 담고 있다. 8년의 제작 기간과 7000여개의 오브제, 13만5000장의 캡처로 담아낸 이 영화는 AI, CG가 일절 사용되지 않은 100% 휴먼 메이드로 스톱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연출과 제작에 열정을 쏟은 작품이다. 제33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메리와 맥스’에 이어 두 번째 대상을 수상했으며 제97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 선댄스 개막작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이들 작품 외에도 조지아 산골 마을을 오르내리는 곤돌라에서 매일 서로를 스쳐 가는 두 승무원 ‘이바’와 ‘니노’의 깊은 교감을 다룬 영화 ‘곤돌라’,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마지막 일주일과 혼신의 아리아를 담은 뮤지컬 시네마 ‘마리아’도 만날 수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약물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연극으로 담아내다

스코틀랜드 연극 ‘컨선드 아더스’
6월26~29일 ACC 예술극장 극장1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약물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연극이 광주를 찾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6월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약물 중독 문제를 다룬 스코틀랜드의 다원 연극 ‘컨선드 아더스(사진)’를 ACC 극장1에서 선보인다.

이 공연은 지난 2023년 에든버러 프린지에서 첫선을 보인 뒤 스코틀랜드 연극상 ‘최고의 프린지 작품’ 부문 준우승에 이어 시카고 국제 인형극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등 국제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평가다. 특히 한 명의 배우가 초승달 모양의 탁자에서 인형극을 하거나 소형 카메라로 작은 모형들을 촬영하면서 이야기를 이끌며 약물 의존 경험자와 의사, 가족과 친구, 중독 지원 서비스 종사자 등 그 주변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녹음해 몰입감을 더한다.

공연에 등장하는 다양한 ‘걱정하는 타

약물 의존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중독 당사자와 그 주변인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는

인들’의 목소리는 중독 문제를 바라보는 색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공연은 원본 그대로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영어로 진행하며, 한국어 자막으로 관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단순히 약물 의존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낙인과 편견을 벗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질문을 던질 전망이다.

‘컨선드 아더스’는 6월26일과 27일 오후 7시30분, 6월28일과 29일은 오후 3시와 6시 등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관람료는 2만원이며 이달 24일 오후 2시부터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박찬 기자

ACC, 호남지역 문화예술 학과 졸업 전시 공모

전시 공간 개방… ‘윤슬정원’
내달 6~16일 누리집 접수
전시장 구축·개막행사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호남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졸업 전시를 오는 5월16일까지 공모한다.

21일 ACC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C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문화예술 분야의 유망주이자 예비 청년 예술인을 키워내는 전공 학과의 졸업 전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열리는 ACC 대학 졸업전시 제목은 ‘윤슬정원’이다. 지난해 개최한 ‘오색 윤슬’의 연속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공 학생들이 ACC 대나무 정원에서 싹 틔우는 잠재력을 ‘빛에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뜻의 ‘윤슬’에 비유했다.

공모 대상은 호남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로, 전시가 가능한 분야여야 한다. 최종 선발된 4개 학과에는 ACC의 관람객 휴식 공간인 문화정보원 대나무 정원을 전시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며, 전시장 구축부터 전시 개막행사 개

최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전시 기획서를 기반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평가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전시장소 적합성 △기획서 실현가능성 △관람객과 소통을 위한 대중친화성 △안전관리 △홍보계획 등 총 5개 항목이다.

전시 기간은 오는 10~12월 중 학과별 1주일씩 2달여 간 릴레이 형태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학과 참여 학생들에게는 전시 준비 및 운영 과정의 협업 기회를 통해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ACC 누리집(www.acc.go.kr) 해당 공고문의 ‘지원하기’ 링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ACC 전당장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첫 단계는 예비 문화예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이번 졸업 전시 지원 역시 지역 협력의 연결 선상이다. 지역 대학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미래 문화예술 창·제작자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참여 학생들에게는 청년 예술인으로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서 펼쳐지는 심청의 이야기

‘박해라의 강산제 심청가’
26일 빛고을국악전수관서

강산제 심청가의 완창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박해라의 강산제 심청가’ 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소리꾼 박해라의 세 번째 완창 프로젝트로, 깊은 서사와 감정이 담긴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심청가는 슬픈 대목이 많아 계면조의 애절한 소리가 두드러지며 아니리(말로

◀ 박해라 소리꾼.
빛고을국악전수관 제공

표현하는 부분)가 많지 않아 오직 소리로 극을 이끌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작품으로 알려졌다.

박해라 소리꾼이 선보이는 이번 심청가는 서편제 명창 박유전의 소리를 계승한 정응민제바디로, ‘박유전-정재근-정응민-조상현-박지윤’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따른다. 보성소리가 지닌 특유의 섬세함과 이면 해석이 돋보이는 강산제 소리의 진면목을 만날 기회다.

박해라 소리꾼은 “이번 공연이 심청가의 서사와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판소리의 매력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관객을 위해 빛고을국악전수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도 함께 진행된다.

박찬 기자



제2대 ACC 전당장에 김상욱 직무대리 임명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등 역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새 전당장으로 김상욱(사진) 전당장 직무대리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1일 김상욱 ACC 전당장 직무대리를 2대 전당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당장은 이강현 전 전당장이 임기를 마친 뒤 지난 3개월간 공석이었던 ACC 전당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다.

김 전당장은 1990년 연세대학교 행정학



과를 졸업했으며 이듬해 제34회 행정고시에 임용됐다. 그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과 관광산업정책관, ACC 기획운영관 등을 역임했다. 김 전당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4월20일까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부터 ACC 전당장을 공개 모집해 심사 등을 거쳐 3개월 만에 김 전당장을 선임했다. 박찬 기자